

# 『해동문헌총록』 불가서적(佛家書籍)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uddhist Literatures in *Haedong-munheon-chongnok*

리 상 용 (Lee, Sang-Yong)\*

## ◁ 목 차 ▷

- |                        |                    |
|------------------------|--------------------|
| 1. 서 론                 | 3.2 불가서적의 성격       |
| 2. 『해동문헌총록』의<br>불가서적목록 | 3.3 조선시대 해제목록과의 비교 |
| 3. 불가서적 해제의 실제         | 3.4 불가서적에 대한 평가    |
| 3.1 불가서적 해제 분석         | 4. 결 론             |
|                        | <참고문헌>             |

## < 초 록 >

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김휴(金休)가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인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해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당시 성리학적(性理學的)인 관점에서 이단인 불가서적(佛家書籍)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김휴는 불서의 해제에서 서적의 내용에 대해 기술하기 보다는 저자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승려인 보우(普雨)를 제외한 나머지 승려에 대해서 성리학적 관점에서 불가서적을 해제하지 않고 성리학적 관점을 초월하여, 불교 그 자체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해제를 하여, 해제의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要語: 김휴, 해동문헌총록, 불서, 불가서적, 석가(釋家)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1년 12월 13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13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nnotations of Buddhist literatures in *Haedong-munheon-chongnok*, An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Korean Books, compiled by Kim Hyu in the 17th century. In this study, how he evaluated the Buddhist literatures, then considered a heresy from the perspective of Neo-Confucianism, was investigated. In the annotations of Buddhist literatures, Kim Hyu described the activities of authors rather than the content. Overall, regarding all Buddhist monks except Bo-u, the Buddhist monk in the Joseon Dynasty, Kim Hyu maintained his objectivity over the Buddhist literatures by annotating them in recognition of Buddhism, not from Neo-Confucian point of view.

Key words: Kim Hyu, *Haedong-munheon-chongnok*, Buddhist Literature, the Class of Buddhism

## 1. 서론

조선왕조 500여년을 지배한 시대적인 지배이념은 성리학(性理學)이었다. 고려 시대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불교는 조선왕조의 개국과 더불어 지배이념의 자리를 상실해 갔고, 새 시대를 펼칠 이념으로 유교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성계(李成桂), 조준(趙浚), 정도전(鄭道傳) 등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장집단이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구시대를 척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통치이념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은 개국 초에 승유억불정책(崇儒抑佛政策)을 실시하고, 도첩제(度牒制)를 강화하는 등 불교에 대한 억압정책을 지속하였다. 또한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 등 조선초기의 개국공신이자 학자들은 성리학의 기초를 닦고, 사회지배체제에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이 성리학은 명실공히 조선왕조 500년을 지배하는 통치이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해제 목록들이 편찬되었다. 그 가운데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해제목록은 김휴(金休)의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1638)이다. 이 「해동문헌총록」은 경와 김휴(敬窩金休, 1597-1638)가 스승 여헌 장현광(旅軒張顯光, 1554-1637)의 권유로 1616년(광해군 8년)에서 1638년(인조 16년)까지 약 22년 동안 경상북도 안동(安東)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명문대가에 소장된 문헌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이다. 동 목록의 편찬목적은 임진왜란 때 비교적 피해를 덜 본 그 지역의 문헌목록을 편찬하여 후대에 문헌을 징빙(徵憑)하고, 고증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sup>1)</sup> 그러나 당시 김휴가 중국의 「문헌통고 경적고(文獻通考 經籍考)」에 버금가는 목록을 편찬하려는 야심을 지녔으며, 그가 22년이란 긴 세월동안 평생의 숙원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여 이 목록을 편찬한 만큼 여기에 수록된 책들은 안동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당시 최선을 다해 서적을 조사한 후 엄밀하게 정선한

1) 裴賢淑, “海東文獻總錄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75), 5-36. 金休, 「해동문헌총록」, 海東文獻總錄序 (서울: 학문각, 1969).

서적들을 수록하였을 것이다.<sup>2)</sup>

이 『해동문헌총록』은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을 채용하지 않고, 김휴가 기존에 나온 목록들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서적을 분류하였다. 동 목록에는 20개의 유목(類目)에 619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들 유목 가운데 ‘제가시문집류(諸家詩文集類)’의 석가목(釋家目)<sup>3)</sup>에 수록된 서적 54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해동문헌총록』은 서적의 내용보다는 저자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제한 경우가 많다. 불서의 해제 역시 불서의 내용은 별로 다루지 않고, 그 불서의 저자인 승려의 행적을 주로 기술했다. 여기에서는 김휴가 그 해제에서 불가서적 또는 그의 저자인 승려를 어떻게 묘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상황에서 이단인 불가에 대해 절저하게 혹평을 했는지 아니면, 성리학적인 입장을 초월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기존에 나온 『해동문헌총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주진,<sup>4)</sup> 윤남한<sup>5)</sup> 등이 간략하게 해제를 기술했으며, 본격적인 연구로는 배현숙,<sup>6)</sup> 김약슬,<sup>7)</sup> 박인호,<sup>8)</sup> 김건곤,<sup>9)</sup> 이상용<sup>10)</sup> 등의 것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해동문헌총록』의 저자와 그의 가계, 찬술동기, 분류체계의 분석, 수록된 고려시대의 문집, 수록 서적의 질적평가에 대한 연구 등에 관한 것들이다.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해제를 대상으로 김휴가 어떤 관점에서 해제를 기술했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2) 이상용, “『해동문헌총록』 수록 도서의 질적 평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집(2011. 9), 200.

3) 여기서 말하는 ‘목(目)’이란 명칭은 전통적인 사부분류법에서 칭하는 ‘속(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해독의 용이성을 위해 이를 달리 부른 용어이다.

4) 강주진, “해동문헌총록해제와 간행서,” 『해동문헌총록』 (서울: 학문각, 1969), 1-7.

5) 윤남한 해제, “金傑 著 海東文獻總錄,” 『한국학』 2(74. 3), 5-6.

6) 배현숙, “해동문헌총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75).

7) 김약슬, “경와집에 대하여,” 『서지학』 7(1982), 121-125.

8)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2006), 65-98.

9) 김건곤, “『해동문헌총록』 소개 고려문집 연구: 부진문집을 중심으로,” 『藏書閣』 18(2007. 12), 57-88.

10) 이상용, “『해동문헌총록』 수록 도서의 질적 평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집(2011. 9), 169-20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을 대상으로 그의 해제 내용과 성격을 밝히고, 역대 해제목록에 수록된 불서와 그 해제를 비교해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 2. 「해동문헌총록」의 불가서적목록

여기에서 말하는 불가서적은 「해동문헌총록」 ‘제가시문집류(諸家詩文集類)’의 ‘석가목(釋家目)’에 수록된 54종을 의미한다. 이 석가목에는 승려들의 시문집과 그들이 저술 또는 편찬한 불교 이론서가 함께 섞여 수록되어 있다. 이 시문집의 경우 불교서적의 범주에 넣기에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불교의 이론을 담은 글이 수록된 경우가 많으므로 큰 범위에서 불가서적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그 범주에 함께 포함시켰다. 한편 사기류(史記類)에 일연의 「삼국유사」가 수록되어 있지만, 그 책의 성격상 이 논문에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불가서적 54종의 목록을 「해동문헌총록」의 석가목(釋家目)에 배열된 순서대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서목록<sup>11)</sup>

玉龍集 / 釋道誥所著  
華嚴疏 / 釋元曉所撰  
三昧經疏 / 釋元曉所撰  
法界圖書 / 釋義湘所著  
錐洞記 / [釋義湘講 智通撮]  
圓鑑集 / 釋圓鑑所著  
圓鑑國師語錄 / [釋圓鑑著]  
萬德山白蓮社靜明國師詩集 / 釋天因所著  
禪坦集 / 釋禪坦所著

11) 목록상에 저자명을 기입하지 않아서, 필자가 해제의 내용을 통해서 찾은 경우 ‘괄호([ ])’를 부기하여 기입하였다. 여러 저작을 몰아서 한 저자로 해제한 경우, 독립된 저작으로 표시하였다.

- 息影庵集 / 僧人所著 不知名氏  
太古語錄 / [釋圓證國師說 古樗哀集]  
圓證國師語錄 / [釋圓證國師語 侍者所紀]  
普濟尊者語錄 / [釋普濟尊者語 弟子編]  
懶翁三歌 / [釋普濟尊者撰]  
溪月軒印空吟 / [釋自超著]  
詩評 / 釋覺月所著  
高僧傳 / 釋覺月所著  
千峰詩集 / 釋卍雨所著  
竹磻集 / 釋宏演所著  
桂庭集 / 釋省敏所著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一部 / 釋己和所著  
圓覺疏三卷 / 釋己和所著  
般若五家說誼一卷 / 釋己和所著  
牧牛子詩集 / 釋普照所著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 釋六行就慧識禪師所撰  
諸般請文 / 釋義湘等所撰  
仔夔刪補文 / 釋一禪所撰  
三大部節要 / 釋了世所撰  
結社文一卷 / 釋知訥所著  
上堂錄一卷 / 釋知訥所著  
法語一卷 / 釋知訥所著  
歌頌一卷 / 釋知訥所著  
心要 / [釋惠誼撰]  
先覺國師撰書一卷 / [釋道詵撰]  
語錄兩卷 / 釋混丘所撰  
歌頌雜著二卷 / 釋混丘所撰  
新編水陸儀文二卷 / 釋混丘所撰  
重編指頌事苑三十卷 / 釋混丘所撰  
語錄二卷 / 釋見明所撰  
偈頌雜著三卷 / 釋見明所撰  
重編曹洞五位 二卷 / 釋見明所撰  
祖派圖二卷 / 釋見明所撰  
大藏須知錄 三卷 / 釋見明所撰  
諸乘法數七卷 / 釋見明所撰  
祖庭事苑十卷 / 釋見明所撰  
禪門拈頌事苑三十卷 / 釋見明所撰  
天台四教儀 / 高麗沙門諦觀所錄  
法集別行錄節要 / [釋知訥著]  
碧松集 / 釋智嚴所著

曹溪集 / 月松和尚所著  
虛應集 / 釋普雨所著  
淸虛堂集 / 釋休靜所著  
四溟堂集 / 釋惟政所著  
釋苑詞林 / 釋義天所輯

위의 54종의 서적을 저자의 생존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삼국시대의 저작으로는 「화엄소(華嚴疏)」, 「법계도서(法界圖書)」, 「옥룡집(玉龍集)」 등 7종이 있으며, 고려시대 및 조선초기<sup>12)</sup>의 저작으로는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 「삼대부절요(三大部節要)」, 「고승전(高僧傳)」 등 40종이 있으며, 조선시대의 저작으로는 「자기산보문(仔夔刪補文)」, 「사명당집(四溟堂集)」,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등 6종이 있고, 저자미상 저작으로 「식영암집(息影庵集)」 1종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의 저작이 40종(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3. 불가서적 해제의 실제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불가서적 54종의 해제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 3.1 불가서적 해제 분석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54종의 불가서적 가운데 해제를 기술하지 않고 저자 표시만 한 서적은 의상(義湘) 등이 집찬한 「제반청문(諸般請文)」, 지엄(智嚴)의 「벽송집(碧松集)」, 월송화상(月松和尚)의 「조계집(曹溪集)」, 의천(義天)의 「석원

12) 원래는 고려시대에 출생해서 조선시대까지 생존한 승려를 대상으로 여말선초로 구분하려고 했으나, 거기에 해당하는 승려의 수가 적고, 또 승려의 생몰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시대구분을 이렇게 하였다.

사림(釋苑詞林)], 저자미상의 『식영암집(息影庵集)』 등 5종이고, 나머지 49종의 서적에는 모두 해제가 붙어 있다.

이들 서적의 해제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해제에서 저자 또는 편찬자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제를 기술하였으며, 책의 내용에 대하여 논급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이밖에 책의 편찬 과정 또는 편찬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 경우가 있었다.

김휴가 저록의 해제에서 저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급한 이유는 『해동문헌총록』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오로지 경적을 위해서 저술한 것이다. 반드시 그 작자의 행적을 밝힌 다음에야 그 책을 꼭 전해야 할지 여부를 믿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인물의 출처를 우선으로 하고, 문장의 논의는 그 다음으로 하였다. … 인물을 논할 때는 반드시 그 기량과 지식을 먼저 살핀 다음에 그 문예를 보고, 작자를 논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행적을 살핀 다음에 그 문장을 알아야 한다. 이 원리를 알면 이 책을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此書則專爲經籍而作 必明其作者之行跡 然後可信其書之必傳與否 故先之以人物出處 次及其文章議論 … 凡論人物者 必須先器識而後文藝 論述作者 必須先行跡而後文章. 知此則可以序是錄矣).<sup>13)</sup>

위의 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휴는 저자의 행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저자의 행적을 살펴 본 후에 그의 저술을 목록에 수록해서 후대에 전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휴는 『해동문헌총록』의 해제에서 인물의 기량과 지식, 저자의 행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이 같은 그의 해제기술방식은 그의 스승 여헌 장현광과 맹자의 영향을 받은 것<sup>14)</sup>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해제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현전하는 조선 최고(最古)의 해제목록에서 당시 이단에 속

13) 金休, 『海東文獻總錄』 海東文獻錄序 (서울: 학문각, 1969), 2-4.

14) 위의 책, 4. 海東文獻錄序.

“是書之作 所以欲徵文獻 欲徵文獻者 欲知其人物之盛衰 文章之高下 世道之升降焉耳 … 孟子曰 誦其詩讀其書 不知其人可乎 夫誦其詩讀其書 而不知其人處心行事之如何 則實與不誦不讀何異 … 然則余所以先述其行跡 後及其文章者 實有見於鄒聖之遺意也.”

하는 불가서적에 대해 어떻게 해제했는지 그 내용을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래는 목록에 수록된 순서대로 해제를 소개하려고 했지만, 동일 저자의 저작이 분산되어 있고, 시대 순으로 배열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삼국시대, 고려시대 및 조선초기, 조선시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대구분은 서적의 간사 시기가 아니라 저자 또는 편찬자의 생존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sup>15)</sup>

### 3.1.1 삼국시대 저작의 해제

삼국시대의 저작으로는 원효(元曉)의 「화엄소(華嚴疏)」, 「삼매경소(三昧經疏)」, 의상(義湘)의 「법계도서(法界圖書)」와 그의 강론을 지통(智通)이 요약하여 편찬한 「추동기(錐洞記)」, 「제반청문(諸般請文)」, 도선(道詵)의 「옥룡집(玉龍集)」, 「선각국사찬서(先覺國師撰書)」 등 저자 3인의 저작 7종이 수록되었다. 이들 해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엄소(華嚴疏)」, 「삼매경소(三昧經疏)」의 해제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釋) 원효 지음. 원효의 속성(俗姓)은 설(薛)이요, 아명(兒名)은 서당(誓堂)이다. 어머니께서 유성(流星)이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낳았다. 나면 서부터 뻐어나가게 영특하여 스스로 깨달았으며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았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을 것이니.[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라는 노래를 부르자 태종 무열왕(太宗武烈王)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저 대사(大師)가 귀부인을 만나 어진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드디어 요석궁(瑤石宮)으로 끌어들이어 과공주(寡公主)와 함께 지내게 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설총이다. 원효는 이미 불가(佛家)의 계율을 상실했으므로, 속복(俗服)으로 지내며 자호를 복성거사라 하였다. 입적(入寂)하자 설총이 그 진상(眞像)을 흙으로 빚어서 분황사(芬皇寺)에 안치하여 공경하고 사모하는 뜻을 표명하였다(釋元曉所撰 元曉 俗姓薛 小名誓堂 母夢流星入懷而生 生而穎異 學不從師 一日 唱於街曰 誰許沒柯

15) 불가서적의 배열순서는 생몰년이 확인된 저자의 저작을 연대순으로 먼저 배열한 다음에 생몰년 미확인 저자의 저작을 배열하였다.

斧 我斫支天柱 太宗聞之曰 此師 殆欲得貴婦 產賢子 遂引入瑤石宮 與寡公主 留宿 有娠生男 是爲薛聰 曉既失戒 俗服 自號卜姓居士 既入寂 聰鑒眞容 安 芬皇寺 以表敬慕之志).<sup>16)</sup>

위의 해제를 보면, 『화엄소(華嚴疏)』, 『삼매경소(三昧經疏)』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급하지 않고 원효대사의 탄생과 요석공주를 만나서 설총을 낳게 된 과정 등 그의 출처(出處)와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법계도서(法界圖書)』의 해제에서는 “의상(義湘)이 29세에 머리를 깎고 중국에 들어가 지엄(知儼)선사를 만나 깊이 숨겨진 뜻을 찾고, 본국에 와서 왕명으로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했다.”<sup>17)</sup>고 기술하고 있다. 『추동기(錐洞記)』의 해제에서는 “의상(義湘)이 문도(門徒)를 인솔해서 소백산 추동에 들어가서 초가를 짓고, 제자들 3천명을 모아놓고 90일 동안 『화엄대전(華嚴大典)』을 강의하였는데, 문인 지통(智通)이 그 강의의 요점을 뽑아 2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친히 훈화하신 내용이라서 언사가 깊은 경지에 이르고 오묘하다.”<sup>18)</sup>고 해제하여 『추동기』의 편찬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제반청문(諸般請文)』의 경우 의상이 편찬했다는 저자표시만 하였다.

『옥룡집(玉龍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도선(道詵)은 백제인이고 호는 옥룡선사(玉龍禪師)이다. 그의 어머니가 냇가에서 놀다가 큰 오이를 얻어먹고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출산 후 부모님께서 상서롭지 못하다고 해서 아이를 버렸지만, 갈까마귀들이 품어 주어 수십 일이 지나도 죽지 않자 부모들이 기이하게 여겨서 데려다 길렀다. 장성하여 출가한 후에 산에 들어가 수련하였는데, 하늘의 신선 이 내려와서 천문, 지리, 음양의 비법을 전수하고, 당나라에 들어가 승려인 일행(一行)의 술법을 배웠다. 세간에 전하는 도참은 모두 도선이 지은 것이다.”<sup>19)</sup>라고

16)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293-294. 華嚴疏, 三昧經疏.

17)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294-295. 法界圖書.

“釋義湘所著 義湘 俗姓金 年二十九落髮 隨使舡入中國 往終南山 謁知儼 鈞深索隱 咸亨元年還國 歸太白山 奉朝旨 創浮石寺.”

18)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295. 錐洞記.

“義湘率門徒 歸于小白山之錐洞 結草爲廬 會徒三千 約九十日 講華嚴大典 門人智通 隨講 撮其樞要 成兩卷 名錐洞記 蓋承親訓 故辭多詣妙.”

해제하여, 『옥룡집』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저자인 도선의 탄생과 성장과정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선각국사찬서(先覺國師撰書)』의 해제에서는 “신라 말에 정치가 혼탁해지자, 도선이 이미 송악에서 왕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그곳에 갔는데, 마침 송악에 집을 짓고 있던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에게 집을 고쳐 짓게 하고, 집 고친 지 2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하였다. 당시 책 한권을 편찬하여 장차 나올 아들을 위해 만든 것이니 그가 장년이 되면 주라고 했다.”<sup>20</sup>고 기술하여 그의 예지력과 책의 편찬 동기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 3.1.2 고려시대 및 조선초기 저작의 해제

고려시대 및 조선초기의 저작으로는 제관(諦觀)의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 의천(義天)의 『석원사림(釋苑詞林)』, 요세(了世)의 『삼대부절요(三大部節要)』,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知訥)의 『목우자시집(牧牛子詩集)』, 『결사문(結社文)』, 『상당록(上堂錄)』, 『법어(法語)』, 『가송(歌頌)』, 『법집별행록절요(法集別行錄節要)』, 혜심(惠諶)의 『심요(心要)』, 천인(天因)의 『만덕산백련사정명국사시집(萬德山白蓮社靜明國師詩集)』, 견명 일연(見明一然)의 『어록(語錄)』, 『개송잡저(偈頌雜著)』,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조파도(祖派圖)』, 『대장수지록(大藏須知錄)』, 『제승법수(諸乘法數)』, 『조정사원(祖庭事苑)』, 『선문염송사원(禪門拈頌事苑)』, 원감(圓鑑)의 『원감집(圓鑑集)』, 『원감국사어록(圓鑑國師語錄)』, 훈구

19)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293. 玉龍集.

본 논문의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 DB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釋道誥所著 道誥百濟人 號玉龍禪師 母出遊川上 得大瓜啖之 忽覺有娠 及生兒 父母以爲不祥棄之 羣鴉來覆 不死數十日 父母異而收養之 及長出家 入山修練 有天仙下降 授以天文地理陰陽之秘 又入唐 學一行法 世傳圖讖 皆誥所著.”

20)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0. 先覺國師撰書.

“釋道誥 當新羅政教寢衰 知將有受命而特起者 因往遊松岳郡 時高麗世祖在郡 方築居第 師過其門曰 此地當出王者 但經始者未諳耳 適有聞之 入白世祖 遽命出迎入 咨其謀 改營之 師因曰 更後二年 必生貴子 於是撰卷書實封之 進世祖曰 此書上[未]生君子 然年須至壯實而後授之耳.”

(混丘)의 『어록(語錄)』, 『가송잡저(歌頌雜著)』, 『신편수륙의문(新編水陸儀文)』, 『중편지송사원(重編指頌事苑)』, 원증국사(圓證國師) 보우(普愚)의 말을 고저공(古樛公)이 모아서 편집한 『태고어록(太古語錄)』과 보우(普愚)의 말을 시자(侍者)가 기록한 『원증국사어록(圓證國師語錄)』, 보제존자 나옹(普濟尊者懶翁)의 『나옹삼가(懶翁三歌)』와 그의 말을 제자가 편찬한 『보제존자어록(普濟尊者語錄)』, 자초(自超)의 『계월헌인공음(溪月軒印空吟)』, 만우(卍雨)의 『천봉시집(千峰詩集)』, 기화(己和)의 『함허당등통화상현정론(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원각소(圓覺疏)』, 『반야오가설의(般若五家說誼)』, 월송화상(月松和尚)의 『조계집(曹溪集)』, 각월(覺月)의 『시평(詩評)』, 『고승전(高僧傳)』, 선탄(禪坦)의 『선탄집(禪坦集)』, 굉연(宏演)의 『죽간집(竹欄集)』, 성민(省敏)의 『계정집(桂庭集)』 등 저자 19인의 저작 40종이 수록되었다. 해제의 서술방식을 보면 각 서적마다 해제를 기술했는데, 동일 저자인 경우, 서적마다 별도로 해제한 경우도 있었고(예: 圓鑑의 『圓鑑集』, 『圓鑑國師語錄』), 동일 저자의 서적을 한 데 몰아서 해제한 경우도 있었다(예: 見明의 『語錄』, 『偈頌雜著』, 『重編曹洞五位』, 『祖派圖』, 『大藏須知錄』, 『諸乘法數』, 『祖庭事苑』, 『禪門拈頌事苑』). 이들 서적 40종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의 해제에서는 “이 책은 제관(諦觀)이 기록한 것인데, 천태교의大本에 의거하여 5시 8교(五時八教)의 개요를 총괄적으로 기록하고 후학에게 제시하여 이 책의 대강을 깨닫게 한 것이다. 만약 이 책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여러 책을 읽어도 헛갈리지 않을 것”<sup>21)</sup>이라고 하여 저자인 제관의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해제를 하였다.

의천(義天)의 『석원사림(釋苑詞林)』<sup>22)</sup>의 경우 저자표시만 하고 해제는 기술하지 않았다.

21)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3-314. 天台四教儀.

“高麗沙門諦觀所錄 依天台教大本中 總錄五時八教之要 以示後學 令曉大綱於此 若明則不迷諸部也.”

22)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7. 釋苑詞林.

“釋義天所輯.”

『삼대부절요(三大部節要)』의 해제에서는 “요세(了世)가 매일 선관송수(禪觀誦授)하는 여가에 말씀하시기를 ‘교해(教海)의 물결이 바다처럼 광대하여 배우는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고 하고, 강요(綱要)를 뽑아 이 책을 만들어 판각하여 널리 퍼지게 한 것이다. 그는 12세에 출가했으며, 나중에 지눌이 대사에게 계(偈)를 보내 선법(禪法)을 닦으라고 권하자 그가 바로 따르셨다. 산 속에서 50여년 동안 은둔하면서 서울 땅을 밟지 않고, 83세에 입적하셨다.”<sup>23)</sup>고 하여 이 책의 편찬동기와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知訥)의 『목우자시집(牧牛子詩集)』, 『법집별행록절요(法集別行錄節要)』, 『결사문(結社文)』, 『상당록(上堂錄)』, 『법어(法語)』, 『가송(歌頌)』 등의 해제를 보면, 『목우자시집』과 『법집별행록절요』는 별도의 저록으로 취급해서 해제를 각각 기술하고, 나머지 4책은 한꺼번에 몰아서 해제하였다. 먼저 『목우자시집』의 해제에서는 “퇴계의 『유소백산록(遊小白山錄)』에 나온 글을 인용하여, 종수(宗粹)스님이 ‘보조국사(普照國師)가 동가타암(東伽陁庵)에서 9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좌선수도하며 자호를 목우자라고 했으며, 그가 지은 시집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그의 시 몇 구절을 외우는데 모두 정신이 번쩍 나게 하니, 비록 이단인 불가의 승려이지만 그의 뛰어난 재주가 감탄할만하다.”<sup>24)</sup>고 그의 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법집별행록절요』의 해제에서는 “목우자 지눌의 말을 인용하여 ‘하택신회(荷澤神會)’는 지해종사(知解宗師)로서, 비록 조계의 적자는 아니지만 그 깨달음이 고명(高明)하며 결택(決擇)이 분명해서, 종말이 그 같은 뜻을 이어서 이 책에서 그 내용을 확실히 밝혀서

23)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07-308. 三大部節要.

“釋了世所撰了世每禪觀誦授之餘自謂教海浩汗學者迷津乃撮綱要出三大部節要鏤板以行了世字安貧俗姓徐氏十二出家曹溪牧牛子在公會佛岬以偈寄師勸令修禪云波亂月難顯雲深燈更光勸君整心器勿傾甘露漿師見而心愜徑往從之遁影山林五十餘年未嘗踏京華塵土年八十三着法服坐坐跏趺面西而化王命有司冊爲國師諡曰圓妙命崔滋撰碑銘.”

24)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06. 牧牛子詩集.

“釋普照所著退溪先生遊小白山錄曰有東伽陁宗粹云普照國師於此坐禪修道九年不出自號牧牛子有詩集粹曾得之爲人借去誦其數句皆警策令人有五穀不熟之嘆也.”

볼 수 있게 했으며, 지금 가르침으로 마음을 깨달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거로운 말들을 없애고 요점을 뽑아내서 관행(觀行)의 귀감으로 삼는다.”<sup>25)</sup>고 했다. 「결사문」, 「상당록」, 「법어」, 「가송」의 해제를 보면 “지눌은 경서 동주인(京西洞州人), 즉 지금의 황해도 서흥(瑞興) 사람인데, 8세 때 중회선사(宗暉禪師)에게 머리를 깎고 구족계(具足戒)를 받았으며, 평소에 지조가 아주 높았다. 청원사(淸源寺), 보문사(普門寺), 길상사(吉祥寺) 등 여러 산사에 계셨으며, 임금께서 그를 중히 여겨서 송광산(松廣山)을 조계산(曹溪山)으로 고치고, 길상사(吉祥寺)를 수선사(修禪寺)로 고치게 하고, 친히 제방(題榜)을 쓰시고, 만수가사(滿繡袈裟)를 하사해서 표창하셨으며, 후에 병이 나자 설법을 하시고 결상에서 적멸하셨다.”<sup>26)</sup>고 하여 지눌의 행적에 대해 기술하였다.

「심요(心要)」의 해제에서는 “고려 강종이 혜심(惠諶)이 수선사(修禪寺)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법요(法要)를 구하자 그가 이 책을 찬진(撰進)하게 된 것이다. 그는 나주 사람인데, 경서에 통달했고 계송(偈頌)을 많이 찬술했으며,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에 이어 수선사(修禪社)의 2대 주지가 되었다. 최충헌이 그의 풍운(風韻)을 듣고 누차 서울로 모셔 오려고 했으나 끝내 거절하고, 나중에 월등사(月燈寺)에서 입적하셨다.”<sup>27)</sup>고 하여 책의 편찬 동기와 그의 행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만덕산백련사정명국사시집(萬德山白蓮社靜明國師詩集)」의 해제에서는 “천

25)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4. 法集別行錄節要.

“牧牛子曰 荷澤神會是知解宗師 雖未爲曹溪嫡子 然悟解高明 決擇了然 密師宗承旨其故於此錄中 伸而明之 豁然可見 今爲因教悟心之者 除去繁詞 鈔出綱要 以爲觀行龜鑑云云.”

26)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08. 結社文, 上堂錄, 法語, 歌頌.

“釋知訥所著 知訥京西洞州人 自號牧牛子 俗姓鄭 八歲投曹溪雲孫宗暉禪師 祝髮受戒 志操超邁 遁跡林壑 昌平淸源寺 下柯山普門寺 公山居祖寺 智異山 無佳菴 皆其住錫之所也 最後住松廣山吉祥寺 王素重其名 命改號松廣山爲曹溪山 吉祥寺爲修禪社 親書題榜 既又就賜滿繡袈裟以褒異之 後疾作 鳴鼓集衆 升座說法 踞床告滅 王贈諡曰 佛日普照國師 金君綏撰碑銘.”

27)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09-310. 心要.

“高麗康宗聞 釋惠諶在修禪寺 遣使求法要 師撰心要以進 惠諶 俗姓崔 名寔 自號無衣子 羅州縣人也 淹貫內外經書 多撰偈頌 繼普照國師 入院 崔忠獻聞師風韻 屢欲邀致京華 師竟不至 後入月燈寺 跏趺而化 王贈諡眞覺國師 李奎報撰碑銘.”

인(天因)이 어려서 총명하고 문장도 잘 해서 바로 수사(秀士)에 천거되어 국자감(國子監)에 들어가 과거에 응시했지만, 끝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그 뒤로 속세와 단절해서 먼 길을 떠나 만덕산(萬德山)에서 원묘국사 요세(圓妙國師了世)를 찾아뵙고, 송광산, 지리산, 상왕산 등 여러 산을 찾아다니다가 나이 44세에 입적하셨다.”<sup>28)</sup>고 하여 그의 행적에 대해 기술하였다.

견명 일연(見明一然)의 『어록(語錄)』, 『계송잡저(偈頌雜著)』,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조파도(祖派圖)』, 『대장수지록(大藏須知錄)』, 『계승법수(諸乘法數)』, 『조정사원(祖庭事苑)』, 『선문염송사원(禪門拈頌事苑)』의 해제에서는 “견명은 경주 장산군 사람인데 나중에 일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는 9세 때 해양(海陽) 무량사(無量寺)에 가서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대단히 총명했으며, 승려가 된 후에 선사(禪肆)를 다니면서 그의 명성이 높아졌다. 인홍사(仁弘寺), 불일사(佛日寺), 운문사(雲門寺) 등에서 머무셨다. 왕이 그에게 시를 보내기도 하였다. 삼중대사(三重大師), 대선사(大禪師)를 거쳐 국존(國尊)으로 책봉되었다. 일연을 대궐로 맞이하여, 왕께서 몸소 백관을 거느리고 스승으로 섬기는 예를 행하였다. 원래 서울에 계신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연로하신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돌아가기를 원하자 왕이 인각사(麟角寺)에 거주하시라고 명했는데, 거기에서 입적하셨다. 나이는 84세이며 저서 및 편저서가 100여권이나 된다.”<sup>29)</sup>고 하여 그의 화려한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28)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297. 萬德山白蓮社靜明國師詩集.

“釋天因所著 天因俗姓朴 弱齡穎悟 博聞強記 以能文能 舉秀士入賢闈 以直赴第一 一生失意春官 卽謝世 拂衣長往 抵萬德山 參圓妙國師 後往來松廣智異象王諸山以終焉 臨死說一偈曰 半輪明月白雲秋 風送泉聲何處是 十方無量光佛刹 盡未來際作佛事 言訖而逝 年四十四.”

29)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2-313. 語錄, 偈頌雜著, 重編曹洞五位, 祖派圖, 大藏須知錄, 諸乘法數, 祖庭事苑, 禪門拈頌事苑.

“釋見明所撰 見明 俗姓金 慶州章山郡人也 後易名一然 九歲往依海陽無量寺 始就學 聰警絕人 自然通曉 後剃髮 遊歷禪肆 聲價籍甚 嘗住妙門庵 仁弘寺 佛日寺 雲門寺等處 王日深傾注 以詩寄云 密傳何必更樞衣 金地遙招亦是奇 欲乞璉公邀闕下 師何長戀白雲枝 初授三重大師 加大禪師 後冊爲國尊 號圓徑 冲照迎入大內 躬率百僚行樞之禮 師素不樂京輦 又以母老乞還 王使佐郎黃守命護行 命住麟角寺 示滅 年八十四 嘗慕陸州陳尊宿之風 自號睦庵 所著及其所編修凡百餘卷 王贈諡曰普覺 塔曰靜照 命閔漬撰碑銘.”

『원감집(圓鑑集)』과 『원감국사어록(圓鑑國師語錄)』은 모두 원감(圓鑑)의 저작이지만 해제를 별도로 기술하였다. 『원감집(圓鑑集)』의 해제에서는 “그의 속명이 위원개(魏元凱)이며, 장원급제하여 한림(翰林)이 되었는데, 나중에 승려가 되었으며, 법명은 충지(冲止)이며, 그의 시를 소개하고, 입적 후에 원감(圓鑑)이란 시호를 받았다”<sup>30)</sup>고 간략히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원감국사어록(圓鑑國師語錄)』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승려 명우(明友)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원감국사(圓鑑國師)가 무애변재(無碍辯才)를 회당화상(晦堂和尚)에게 터득하고, 감로(甘露)에서 조계(曹溪)에 이르기까지 세 번 도량에 앉아서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설법 하시고, 사물에 접해 증생을 이롭게 하였다. 어떤 때는 당에 오르기도 하고, 대중에게 설법해 주시기도 하며, 가송(歌頌)을 하기도 하며, 선종과 교종, 유가와 석가에 대하여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어둠이 가면 밝음이 오고, 천차만별이라 그 끝을 다 할 수 없지만 그 뜻은 하나이다. 비유해 보면, 봄에 온갖 만물이 유행하여 한 송이 꽃과 한 포기 풀도 모두 봄이고, 바다가 모든 강에 두루 통하여 하나의 실개천이나 하나의 물방울도 모두 바다인 것과 같다. 그러나 한 송이 꽃과 한 폭의 풀에서 봄을 알지 못하고, 하나의 실개천과 하나의 물방울에서 바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를 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釋明友序曰 圓鑑國師 得無碍辯才於晦堂和尚 自甘露至曹溪 三坐道場 隨機說法 接物利生 或上堂 或示衆 或歌或訟 禪也教也 儒焉釋焉 橫拈倒用 暗去明來 千差萬別 莫窮其涯涘矣 其義則一也 譬如春行萬彙 一花一草 皆春也 海遍千江 一涓一滴 皆海也 然不向一花一草上知春 不向一涓一滴上知海者 觀之有暇矣)<sup>31)</sup>

위의 해제에서 고려후기의 대표적인 승려인 원감(圓鑑)의 설법과 그의 폭넓은 학문세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혼구(混丘)의 『어록(語錄)』, 『가송잡저(歌頌雜著)』, 『신편수륙의문(新編水陸儀文)』, 『중편지송사원(重編指頌事苑)』의 해제에서는 “혼구(混丘)가 청풍군 사람인데, 학문을 두루 섭렵했으며, 시문이 훌륭하였으며, 10살 때 무위사(無爲寺) 천경선사(天鏡禪師)에게 가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되었다. 구산선(九山選)의 상상과(上

30)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296. 圓鑑集.

“釋圓鑑所著 圓鑑俗名魏元凱 擢魁科爲翰林 後爲浮屠 名冲止 有詩曰 誰知鷄足山中老 曾是龍頭會上賓 卒諡圓鑑.”

31)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296. 圓鑑國師語錄.

上科)에 수석으로 급제하였으나, 포기하고 보각 일연(普覺 一然)에게 배웠다. 충렬왕이 가리법복(伽梨法服)을 하사하고 여러 차례 하비(下批)하여 대선사가 되고, 충선왕이 즉위하자 양가도승통(兩街都僧統)을 제수하고, 충숙왕 때 왕사(王師)로 책명되었으며, 병이 나자 송림사(松林寺)에 가서 입적하였다.”<sup>32)</sup>고 하여 그의 화려한 행적에 대해 기술하였다.

고저(古樗)가 그의 스승 원증국사 보우(圓證國師普愚)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모아서 편집한 「태고어록(太古語錄)」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은(陶隱)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세의 태고(太古)는 대개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다. 석장(錫杖) 하나를 가로 잡고 강호(江湖)를 두루 다니다가, 오흥(吳興) 하무산(霞霧山)에 이르러 석옥공선사(石屋珙禪師)를 만나 뵈고 번쩍 떠오르는 깨달음을 목격하였다. 돌아가려고 하자 가사(袈裟)를 주셨는데 마음을 전해 주신 것이다. 태고가 환국하자, 우리 공민왕은 대사께 스승으로 섬기는 예를 받들어 매우 성대하고 삼가히 하였다. 그러나 태고는 평소처럼 계시다가 몇 개월도 안 되서 어딘가로 떠나셨는데, 오랜 뒤에 예전에 은거하신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설산(小雪山)에 암자를 세우고 소찬을 드시면서 욕심 없이 깨끗하게 스스로 지키시며, 함부로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저녁 때 입적하셨다. 지금 왕사(王師) 고저공(古樗公)은 그의 상수 제자이다. 평상시에 스승에게 들은 내용을 간추려 모아 몇 권의 책을 완성하여 제목을 「태고어록(太古語錄)」이라 하고, 나에게 서문을 짓게 했다(陶隱序曰 近古太古 蓋人豪也 橫拈一錫 游徧江湖 至吳興之霞霧山 參見石屋珙禪師 目擊妙契 及其告歸 授以迦黎 所以傳心也 太古之還國也 我玄陵 執摠衣之禮 甚盛甚謹 太古處之若固有 不數月 挺身走 久之知還舊隱也 卓庵小雪山 飯盂蔬盤 淡然自守 不妄接人 一夕示寂 今王師古樗公 其上首也 哀集平日函丈所聞 成如干卷 題曰太古語錄 俾予序).<sup>33)</sup>

32)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0-312. 語錄, 歌頌雜著, 新編水陸儀文, 重編指頌事苑. “釋混丘所撰 混丘 俗姓名 名清玠 清風郡人也 學無不窺 詩文富瞻 十歲投無爲寺禪師天鏡 祝髮 以九山選首 登上上科 棄去從普覺學 忠烈王賜伽梨法服 累下批至太禪師 德陵卽政 特授兩街都僧統 加太師子王法寶藏海國一之號 皇慶癸丑 德陵謝位 處永安宮 累遣中使 輿而致之 從容談道 或至日暮 於是諗國王 以宗祖舊例 冊命師爲悟佛心宗解行圓滿鑑智王師 後住瑩源寺 感疾 移錫于松林寺 盥浴說法別衆 其略曰 荊棘林中下脚 干戈叢裡藏身 今日路頭果在何處 白雲斷處是青山 行人更在青山外 旣乃還方丈 據床而逝 王贈諡曰寶鑑國師 命李齊賢撰碑銘.”

33)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298-299. 太古語錄.

위의 해제를 보면, 김휴는 도은의 서문을 인용하여 태고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수제자인 고저(古樗)가 스승 태고의 말씀을 기록하여 『태고어록』을 편찬한 후 서문을 부탁한 사실에 대해 기술하였다. 『원증국사어록(圓證國師語錄)』의 해제에서는 “포은선생의 후제를 인용하였는데, 이 책은 시자(侍者)가 기록한 것으로, 원증국사는 담변(談辨)이 날래고 예리하며, 의리가 크고 넓어서 속세의 사람들이 감히 그 옳고 그름을 논의할 것이 못된다. 공민왕 때 선사를 소설산(小雪山)에 초청해서 그날 법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어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선사께서 포은의 선우(先友)인 김중현(金仲賢)을 애중(愛重)하셔서 당시 수차례 함께 찾아뵈었는데, 원증선사와 김중현 모두 세상을 떠난 지금 이 책을 보니 마음이 몹시 서운하고 섭섭해진다.”<sup>34)</sup>고 하여 이 책의 편찬 경위와 보우의 행적과 함께 옛 회고담을 기록하였다.

보제존자 나옹(普濟尊者懶翁)의 말을 제자들이 편찬한 『보제존자어록(普濟尊者語錄)』과 『나옹삼가(懶翁三歌)』의 해제를 살펴보겠다.

먼저 『보제존자어록』의 해제에서는 “목은의 서문을 인용하여 기술하였다. 공민왕의 스승인 보제존자 나옹은 서천(西天)의 지공화상(指空和尚)과 절서(浙西)의 평산처림(平山處林)에게 불법을 이어받아 크게 종풍(宗風)을 천양하여, 그의 편언(片言) 반구(半句)라도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겨서 이 어록을 찬술하게 된 것이다. 스승의 도가 행해지는가 여부는 후학들에게 달려 있는데, 후대의 사람들에게 스승의 도를 알리려면 이 어록이 꼭 필요하므로 제자들이 이 책의 출판에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나옹의 범명은 혜근(惠勤)이며, 이 어록이 중국에서 간행되었다.”<sup>35)</sup>

34)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299-300. 圓證國師語錄.

“圓隱先生題其後曰 右圓證國師語錄 侍者所紀也 其譚辨之迅利 義理之宏闊 有非俗者所敢擬議 因竊伏念玄陵在位 特邀師于小雪山 張皇佛事 以爲太平之觀 今錄中所載 卽當日陞座所說也 憶 與先友金仲賢挾冊從僧遊 師一見仲賢愛重之 余亦因之數往謁焉 實至正丙申夏也 厥後玄陵捐羣臣 圓證下世 而吾仲賢亦已不幸矣 自丙申至今洪武丁卯 蓋三十又二年矣 今觀此錄 不覺悵然.”

35)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00-301. 普濟尊者語錄.

“牧隱序云 玄陵之師普濟尊者 闢法於西天指空浙西平山 大闡宗風 故其片言半句 爲世所重 語錄所以述也 師之道之行之與否也 固在於後之人 後之人知師之道也 非語錄無由 宜其弟子之區區於此也 予以非才 奉旨撰銘 又引語錄 吾之幸也歟 吾之不幸也歟 懶翁名

고 하여 그의 학통과 책의 편찬동기와 간행의 필요성에 대해 논급하였다. 『나옹삼가(懶翁三歌)』의 해제에서는 “목은의 『나옹삼가후(懶翁三歌後)』를 인용하였는데, 거기에서 세 노래의 수미가 서로 호응하고 맥락이 서로 통하여, 후인에게 보이는 뜻이 깊고 간절하다. 나옹의 문자는 손가는 대로 써서 초고를 쓴 적이 없지만 실리(實理)가 찬연하고 운어(韻語)가 낭연하다. 하지만 세속 문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삼가(三歌)가 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은 것은 그가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영가(永嘉)의 구법(句法)을 본뵈겠는가. 훗날 서역에 널리 전파된다면, 의당 그 음을 감상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sup>36)</sup>라고 하여 서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제하였다.

『계월현인공음(溪月軒印空吟)』의 해제에서는 “목은의 후제를 인용하여 기술하였다. 무학 자초(無學自超)는 보제(普濟)의 뛰어난 제자이며, 계월현(溪月軒)은 그가 사는 곳이고, 인공음(印空吟)은 저서명이다. 자초(自超)가 연경(燕京)에 유학하면서 보제(普濟)를 찾아뵈었는데, 보제가 극구 찬양하여 ‘말을 내놓고 구절을 토할 때마다 화살과 칼날이 서로 버티는 것 같다. 한 입으로 빈주(賓主)의 문귀를 삼켜버리니 장차 불조(佛祖)의 관문을 몸소 꿰뚫고 지나갈 것’이라고 하며 법어(法語)와 의물(衣物)을 주어 신표로 삼았다. 보제가 입적한 후에 무학이 유방승(遊方僧) 사이에 스승이 되었다.”<sup>37)</sup>고 논급하여, 저자인 자초의 행적을 위주로 기술하였다.

『천봉시집(千峰詩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도은(陶隱)의 후제를 인용하여, 만

惠勤 本不學 有精進之功 能解文字 所著語錄刊中國.”

36)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01-302. 懶翁三歌.

“牧隱書其後曰 三歌首尾相應 脉絡相通 所以示後人也 深且切矣 懶翁文字 信手 未嘗立草 吐出實理粲然 寫出韻語琅然 然於世俗文字 不甚解 亦可見焉 至於三歌 如出二人之手 必其研精覃思而作者也 不然 何以倣永嘉句法哉 異日流傳西域 當有賞音者矣.”

37)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02. 溪月軒印空吟.

“牧隱題其後曰 超無學 普濟高弟也 溪月軒 其所居也 印空吟 其所著也 無學游燕京 見普濟 普濟極口讚嘆 以爲 出言吐句 如箭鋒相拄 一口吞却賓主句 將身透過佛祖關 遂以法語衣物表信 普濟既寂 無學方以其道 爲師於雲水萬衲之間 離[名]離相 應物無跡 則溪也月也 雖若有形跡存焉 至於捉之不可得 則印空也 明矣云云.”

우(卍雨)가 여우(旅寓)에서 자신을 따른 지 한 달 쯤 지나서 시 한질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이 맑으면서도 고삽하지 않고, 질박하지만 비천하지 않아서 오래 읽을 수록 싫증나지 않았다. 그의 시는 당나라의 『구승집(九僧集)』에 뒤지지 않는 것이며, 후대에 그의 시를 읽고 ‘그가 단지 시승(詩僧)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sup>38)</sup>라고 기술하여 그 책에 수록된 시를 중심으로 논급하였다.

기화(己和)의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원각소(圓覺疏)』, 『반야오가설의(般若五家說誼)』의 해제에서는 “기화(己和)가 충주 사람인데, 어려서 반궁(泮宮)에 들어갔으며, 21세에 출가하여 희양산(曦陽山) 봉암사(鳳巖寺)에 있다가 선덕 8년(1433)에 입적했다.”<sup>39)</sup>고 그의 행적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월송화상(月松和尚)이 지은 『조계집(曹溪集)』<sup>40)</sup>의 경우 저자표시만 하고 해제는 기술하지 않았다.

『시평(詩評)』, 『고승전(高僧傳)』의 해제를 보면, “각월(覺月)은 원종 때의 산인으로 시를 잘해서 『시평』을 저술했는데, 이규보가 각월이 죽은 후에 그의 시를 쓰면서 통곡했다.”<sup>41)</sup>고 기술하였다.

『선탄집(禪坦集)』 해제에서는 “선탄(禪坦)의 호는 유옹(幼翁)인데, 시를 잘 짓고 거문고를 잘 탔으며 익재(益齋)와 함께 교류했다고 하면서 익재가 보낸 시와

38)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03-304. 千峰詩集.

“釋卍雨所著 陶隱題其後曰 雨從余旅寓月餘 一日出其所作詩一帙 見示 清而不至於苦拙 而不至於野 腴而不至於膩 讀之愈久而愈不知倦焉 世傳唐九僧集 予嘗竊窺其梗槩 雨之所得 豈肯多讓乎 雖然 詩之工拙 不足以論吾兩也 後之觀雨之詩者 苟徒曰 雨詩僧而已 則爲未知雨者也 雨號千峯 幻菴之高弟也.”

39) 위의 책, 305-306. 諸家詩文集. 釋家.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圓覺疏, 般若五家說誼. “釋己和所著 己和忠州人 俗姓劉 舊名守伊 號得通 又號無準 幼入泮宮 日記數千言 年二十一出家 住曦陽山鳳巖寺 所居室曰涵虛堂 宣德八年卒.”

40)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5. 曹溪集. “月松和尚所著.”

41)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03. 詩評 高僧傳.

“釋覺月所著 覺月元宗時山人 能詩 嘗著詩評 李奎報有哭覺月詩.”

선단이 관동을 유람하면서 지은 시를 소개해 주었다.”<sup>42)</sup>

『죽간집(竹澗集)』의 해제에서는 “굉연(宏演)이 원나라에 가서 구양현(歐陽玄)과 위소(危素)와 교류하였는데, 시가 가장 강건하다. 구양현과 위소가 책의 서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구양현은 ‘굉연의 고체시(古體詩)는 사기(辭氣)가 깊고 고요하며 정채(精采)가 현란하지 않으며, 칠언율시(七言律詩)는 청윤(淸潤)하고 순아(馴雅)하여 허혼(許渾)과 흡사하며, 오언(五言)은 맑고 깨끗하며, 진실하고 넉넉하여 현묘(玄妙)의 문집과 같다’고 평가했으며, 위소는 ‘굉연의 사람됨이 비루한 것에 욕심내거나 명예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선(禪)을 즐기는 사이에 글 짓는 것을 좋아하여, 당대의 현인, 호걸과 교류하였으며, 일본승 조연(杲然)과 함께 명성을 날린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sup>43)</sup>

『계정집(桂庭集)』의 해제에서는 “성민(省敏)의 호가 계정(桂庭)인데, 천봉(千峰)과 함께 명성을 날렸으며, 그의 시는 바람 따라 나부끼되 빼어나며, 마음 가는 대로 제멋대로 하니 승려의 기운이 없다.”<sup>44)</sup>고 간략히 기술하였다.

### 3.1.3 조선시대 저작의 해제

조선시대의 저작으로는 지엄(智嚴)의 『벽송집(碧松集)』, 보우(普雨)의 『허응집(虛應集)』, 휴정(休靜)의 『청허당집(淸虛堂集)』, 일선(一禪)의 『자기산보문(仔夔刪補文)』, 유정(惟政)의 『사명당집(四溟堂集)』, 육행(六行)이 혜식선사(慧識

42)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298. 禪坦集.

“釋禪坦所著 禪坦號幼翁 能詩善琴 與益齋同遊 益齋寄人詩曰 春風無限相思意 說與江南坦上人 詩格註曰 禪坦常遊關東有詩云 鳴沙十里海棠紅 白鷗兩兩飛疎雨 世稱疎雨禪士.”

43)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04-305. 竹澗集.

“釋宏演所著 宏演字無說 號竹澗 入元與歐陽玄危素交遊 詩最健 歐陽玄序曰 演公古體詩 辭氣深穩而精采不銜 七言律詩 淸潤馴雅 似許渾 五言 沖澹眞腴 似玄妙集 充其所至 何可量也 危素序曰 演師 爲人不貪鄙而近名 獨於禪悅之暇 好爲文詞 於是 當世賢豪 往往與演師遊 宋初 日本僧有杲然者 寔至中土 其翰墨傳以爲寶 演師與之齊驅而並駕 始知演師之難得矣.”

44) 위의 책, 305. 諸家詩文集. 釋家. 桂庭集.

“釋省敏所著 省敏號桂庭 與千峰齊名 其詩飄飄俊逸 隨意放肆 無方外之氣.”

禪師)를 따르면서 찬술한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등 저자 6인의 저작 6종이 수록되어 있다.

『벽송집(碧松集)』은 해제는 기술하지 않고, 저자표시만 하였다.<sup>45)</sup>

『허응집(虛應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釋) 보우(普雨) 지음. 보우는 명종조의 요사스러운 중이다. 불법을 널리 벌리고 그의 거처는 분수에 넘치게 높은 사람과 견줄만하다. 또한 회암사(檜巖寺)에서 무차회(無遮會)를 열었는데 그 비용이 만 냥 가까이 들었다. 대간과 태학생들이 줄지어 글을 올려 처벌을 청하자 지방으로 쫓아내서 서울 근교의 산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역말을 훔쳐 타고 도주하다 인제에서 잡혔다. 제주도에 유배 보내라고 명했는데, 얼마 후 죽었다(釋普雨所著 普雨明廟朝妖僧 廣張佛法 居處僭擬 又設無遮會於檜岩寺 其費萬計 臺諫及太學生連章請誅 命黜于外 毋令出入京山 乃竊騎鋪馬而走 被獲於麟蹄 命流濟州 未幾死).<sup>46)</sup>

김휴는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서의 해제에서 승려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없는데 유독 보우에 대해서만 이처럼 악평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청허당집(淸虛堂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휴정(休靜)의 고향은 해주이고 어렸을 때 유가의 말씀을 익혀서 이미 대의에 통달했으며, 두류산을 유람하다가 출가할 뜻을 품게 되어 부용영관(芙蓉靈觀)의 문하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불법을 전수 받았으며, 명산에 두루 계시다 입적하셨는데, 문인 유정(惟政)이 그가 남긴 글을 간추려 모아서 세상에 전하였다.”<sup>47)</sup>고 그의 행적과 책이 편찬된 계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자기산보문(仔夔刪補文)』의 해제에서는 “승려 일선(一禪)이 찬술했는데 제산단(諸山壇), 종실위(宗室位)의 순으로 구성되었다.”<sup>48)</sup>고 간략히 기술하였다.

45)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4. 碧松集.  
“釋智嚴所著.”

46)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5. 虛應集.

47)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5-316. 淸虛堂集.

“釋休靜所著 家安西 少習儒家言 已通大義 嘗遊頭流 始有出家之志 投芙蓉靈觀門下 剃髮受法 遍栖名山以終焉 門人鍾峰惟政 哀集遺文 以傳于世.”

48)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07. 仔夔刪補文.

『사명당집(四溟堂集)』의 해제에서는 “유정(惟政)이 휴정의 제자이며 장수의 제주가 있고, 절협의 기풍이 있어서, 임진왜란 때 의병을 규합하여 여러 차례 적군을 무찔렀으며, 왕명을 받들어 일본에 사신으로 갔는데, 일본인들이 신승(神僧)이라고 여겨 모두 공경하고 받들었다. 저술한 시문은 병화로 유실되고, 문도인 혜구(惠球)가 약간 수를 모아서 7권을 편찬하였다.”<sup>49)</sup>고 기술하였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 해제에서는 “육행(六行)이 혜식선사(慧識禪師)를 따르면서 찬술한 책인데 간략하게 1권으로 만들었다. 25륜(倫)을 설정하고, 청문(請文)을 그 안에 추가했다.”<sup>50)</sup>고 간략히 기술하였다.

## 3.2 불가서적의 성격

### 3.2.1 해제의 내용적 관점

조선시대는 억불숭유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불교는 이단이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불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적대시하거나 비하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김휴는 영남학파의 맥을 이은 전통적인 성리학자이다. 과연 그러한 김휴가 이들 불가서적의 해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전 장에서 살펴본 해제의 내용을 토대로 1) 불가서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제한 경우, 2) 승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제한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釋一禪所撰 第一曰諸山壇 第二曰宗室位。”

49)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6. 四溟堂集.

“釋惟政所著 惟政號鍾峯 又號松雲 休靜弟子也 有將帥才 有節俠風 壬辰倭亂 糾合義徒 屢摧賊軍 又承命往使日本 日本人以爲神僧 皆敬奉焉 所著詩文 失於兵火 門徒惠球哀集若干首 編成七卷.”

50) 위의 책, 306. 諸家詩文集. 釋家.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釋六行就慧識禪師所撰 略爲一卷 自爲二十五倫 請文添入其中.”

1) 불가서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제한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 『나옹삼가(懶翁三歌)』, 『천봉시집(千峰詩集)』, 『죽간집(竹澗集)』 등의 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휴는 천태종의 교상(敎相)인 5시 8교(五時八敎)의 개요를 다룬 책인 『천태사교의』에 대해 후학이 이 책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다른 책을 읽는데 미혹됨이 없을 것<sup>51)</sup>이라고 하여 이 책을 성리학적인 관점이 아닌 불가 그 자체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나옹삼가』에 대해서도 목은의 글을 인용하였지만, 그 세 노래가 수미가 서로 호응하여 후인에게 보이는 뜻이 깊고 간절하다<sup>52)</sup>고 하며 그 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천봉시집』의 해제에서도 비록 도은(陶隱)의 후제를 인용하였지만, 거기에 수록된 만우(卍雨)의 시가 당나라의 『구승집(九僧集)』에 뒤지지 않는 것<sup>53)</sup>이라고 극찬하였으며, 『죽간집(竹澗集)』의 해제에서도 거기에 수록된 평연(宏演)의 시가 가장 강건하다고 평가하고, 구양현과 위소가 그의 시에 대해 극찬한 내용을 밝혀준 것이다.<sup>54)</sup> 이처럼 김휴는 비록 불가서적이라도 그 내용이 훌륭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 것이다.

2) 승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제한 경우.

김휴가 불가서적의 해제에서 저자인 승려들의 행적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행적을 기술했다. 유독 조선시대의 승려 보우(普雨)에 대해서만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해제를 기술하였다.

불가서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려 및 조선초기 저작의 해제에서는 주로 포은 정몽주(圃隱鄭夢周), 목은 이색(牧隱李穡), 도은 이숭인(陶隱李崇仁), 백운 거사 이규보(白雲居士李奎報), 퇴계 이황(退溪李滉)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기술했다. 만일 김휴가 그들과 입장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평생 숙원사업으로 편찬한 자신의 해제목록에서 그들의 글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51) 주)21 天台四敎儀 참조.

52) 주)36 懶翁三歌 참조.

53) 주)38 千峰詩集 참조.

54) 주)43 竹澗集 참조.

불가서적의 해제 기술 방식을 보면, 김휴 자신이 책을 읽은 소감을 글로 표현했기보다는, 책의 서문 또는 발문, 기존에 나온 서적, 묘비명 등 여러 자료에 수록된 내용을 추출하여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서 당대의 대학자들이 불가서적 또는 그 저자인 승려에 대해 기술한 관점은 그가 해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및 조선초기의 경우, 국가적으로 불교장려정책 및 그 영향이 미쳤던 시대인 만큼 당대의 대학자들은 당시에 출판된 불교서적이나 승려에 대해 훌륭한 평가를 내렸다. 김휴 역시 그들이 이미 작성해 놓은 글을 토대로 해제를 작성하였으므로,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저자인 승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김휴가 억불정책을 썼던 조선시대의 승려에 대해 과연 어떤 관점에서 해제를 작성했는가이다. 그는 조선시대의 불가서적으로 육행(六行)이 혜식선사(慧識禪師)를 따르면서 찬술한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일선(一禪)의 「자기산보문(仔夔刪補文)」, 지엄(智嚴)의 「벽송집(碧松集)」, 보우(普雨)의 「허응집(虛應集)」, 휴정(休靜)의 「청허당집(淸虛堂集)」, 유정(惟政)의 「사명당집(四溟堂集)」 등 조선시대 승려 6인의 저작 6종을 수록했다. 이 중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 「자기산보문」, 「벽송집」 등 3종의 경우 아주 간략히 해제를 하거나 저자표시만 하고, 「허응집」, 「청허당집」, 「사명당집」 등 3종의 해제에서 저자의 행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먼저 「허응집(虛應集)」의 해제에서 보우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휴정과 유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중기의 승려인 보우는 당시 억불숭유정책으로 곤경에 처한 조선시대의 불교 부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승려이다. 그러나 김휴는 그에 대해 가차 없이 혹평하였다. 그가 수록한 모든 승려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보우가 명종조의 요망한 중인데, 불법을 크게 확장하고 분수도 모른 채 호화스럽게 살며 큰 비용을 들여서 무차회(無遮會)를 열었다가 대간과 대학생들이 처벌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에 유배

가서 얼마 후 죽었다.”<sup>55)</sup>고 악평을 가했다. 이는 다른 승려와는 달리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우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당시 사회적 폐단을 일으켜 조선의 성리학자들과 대립한 보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휴가 유독 보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혹평을 가한 것은 그가 속한 영남 학파의 대학자이자 자신의 증조부 귀봉 김수일(龜峰 金守一, 1528-1583)의 동생인 학봉 김성일(鶴峰 金誠一, 1538-1593)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성일(金誠一)은 문정왕후가 보우의 말에 따라 희릉(禧陵)을 옮기려 하자, 그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지었기 때문이다.<sup>56)</sup> 김휴는 그가 존경하는 학자이자 종증조부(從曾祖父)인 학봉과 뜻과 달리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선시대의 승려가 저술한 『청허당집(淸虛堂集)』과 『사명당집(四溟堂集)』에서는 휴정과 유정에 대해서 보우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제를 기술하였다.

『청허당집』에서는 휴정의 일대기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그러나 『사명당집』에서는 “유정이 임진왜란 때 승의병을 일으켜 적군을 무찔렀으며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일본인들이 신승(神僧)으로 여겨 모두 공경하고 받들었다.”<sup>57)</sup>고 하여 임진왜란 때 행한 휴정의 활약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당시 국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 것이다.

김휴가 『해동문헌총록』에 승려 29인의 저작 54종을 수록하였는데 유독 혹평을 한 승려는 조선 중기의 승려 보우(普雨) 한 사람 뿐이다. 그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당시 성리학적인 입장을 초월하여 지극히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승려들에 대해 비하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묘사했으며, 일부 승려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공적을 밝히고 후세에 귀감이 될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것이다.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해제를 볼 때, 김휴는 당시의 지배 이념인

55) 주)46 虛應集 참조.

56) 金誠一, 『鶴峯全集』附錄 卷1. 年譜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2).

“四十一年壬戌 … 初 文定王后用妖僧普雨說 奉遷禧陵 移卜靖陵 尹元衡當國主張 舉朝莫敢言 先生慨然草疏 辭氣抗直 無所回避 竟爲父兄所力止 不果上.”

57) 주)49 四溟堂集 참조.

성리학적 관점을 초월해서 서적과 그의 저자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떤 주제 분야의 책이든, 설사 그 분야가 이단에 해당되는 불가서적일지라도 그 책의 내용적 가치가 훌륭하거나 저자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여 해제를 기술했던 것이다. 당시 많은 선비들이 사대주의를 표방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지닌 상황에서 한국 중심적 관점으로 한국서적을 위한 해제목록을 편찬한 것은 그의 큰 성과이다. 그에 더하여 당시 사상적인 입장을 초월해서 불가서적에 대해 해제의 객관성을 유지한 점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 3.2.2 불가서적의 분류 및 목록기술적 관점

여기에서는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을 분류적인 관점과 목록기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분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전통적인 동양의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서적을 제1분지(第1分枝)의 세 번째 유목인 자부(子部)의 하위단계 즉 제2분지(第2分枝)의 한 유목(類目)인 ‘유(類)’단계의 석가류(釋家類)에 분류하되, 불가(佛家) 승려(僧侶)의 개인문집은 또 다른 제1분지의 하나인 집부(集部)의 하위단계 즉 제2분지(第2分枝)인 ‘별집류(別集類)’에 분류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하는 김휴의 「해동문헌총록」의 분류법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김휴는 이 총록에서 도서 분류의 첫 단계의 구분 즉 제1분지의 유목을 20개의 유목 즉 유(類)로 나누어서 그 둘째자리의 유목에 제가시문집(諸家詩文集)을 배정하고, 그것을 다시 나눈 제2분지의 유목 즉 목(目)을 신라(新羅), 고려(高麗), 이조(李朝), 규수(閔秀), 선귀(仙鬼), 석가(釋家) 등의 6개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듯 김휴는 「해동문헌총록」의 분류에서 석가목(釋家目)을 제가시문집류의 제일 마지막 자리에 배정한 것이다.

김휴는 그 석가목(釋家目)에 승려들의 시문집 외에 불교관련서 전체를 함께 수록하였다. 석가의 유목을 제1분지의 유목인 ‘석가류(釋家類)’라 내세우지 못하

고 이를 제2분지의 유목으로 한 단계 내려서 배정한 것은 아마도 당시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버젓이 제1분지에 석가류란 유목을 차마 설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 일 것이라 생각된다.

동일 분류항목 내에서 저록의 배열방식을 살펴보았다. 대개 한국과 중국의 해제목록의 경우, 동일 유목 하에서 저록의 배열은 전통적으로 저자의 선후학순으로 하고 있다. 『해동문헌총록』 석가목의 저록 배열 순서를 보면 역시 선후학순 즉 장유유서의 순차를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그러나 석가목의 맨 앞에 도선의 『옥룡집』을 배열하고 석가목의 후반부에 도선의 『선각국사찬서』를 똑 격리해서 배열한 다음 그 저록의 후미에 작은 글씨로 이 책은 “의당 『옥룡집』 다음에 배열되어야 함이 옳다”<sup>58)</sup>고 주기하고, 보각국사 견명의 제자인 혼구의 저작을 스승인 견명의 저작 앞에 배열 한 다음에 이 책은 “의당 보각 다음에 배열되어야 함이 옳다.”<sup>59)</sup>고 주기하는 등 그 순서를 잘못 배열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변에서 보듯이 저자의 선후학순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본다.

전체적인 배열순서를 볼 때, 석가목의 중간에 신라시대 저작인 『제반청문』을 배열하고, 고려 전기 저작인 『천태사교의』를 후반부에 배열하고, 조선시대 불서를 모두 배열한 다음 맨 마지막에 고려시대 의천이 집찬한 『석원사림』을 배열하는 등 저자의 선후학순의 배열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목록기술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록기술은 전체적으로 볼 때, 표제, 권수,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등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華嚴疏, 三昧經疏

釋元曉所撰 元曉 俗姓薛 小名誓堂 母夢流星入懷而生 生而穎異 學不從師 一日 唱於街曰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太宗王聞之曰 此師 殆欲得貴婦產賢子 遂引入瑤石宮 與寡公主留宿有娠生男 是爲薛聰 曉既失戒 俗服 自號卜姓

58)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0 先覺國師撰書一卷 當在玉龍集下

59)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310-311. 語錄, 歌頌雜著, 新編水陸儀文, 重編指頌事苑 當在普覺下

居士 既入寂 聰塑眞容 安芬皇寺 以表敬慕之志<sup>60)</sup>

위의 예를 분석하면, ‘華嚴疏, 三昧經疏’는 표제표시를, ‘釋元曉’는 저자명표시를, ‘所撰’은 저작역할어표시를, ‘元曉 俗姓薛 … 以表敬慕之志’는 해제를 각각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이들 서지기술사항 가운데 마지막 사항인 해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제표시에서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다. 표제를 기술한 다음에 권수표시를 했는데 대부분의 저록에서 그 표시를 생략했다. 권수표시는 접미어로 ‘권(卷)’을 썼는데 간혹 ‘부(部)’를 쓴 경우가 있었고, 이권(二卷)을 양권(兩卷)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先覺國師撰書一卷  
重編指頌事苑三十卷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一部 / 釋己和所著  
語錄兩卷 / 釋混丘所撰

저작시대표시는 대체로 하지 않았는데, 간혹 하였을 경우는 저자명 앞에 저작시대를 관기(冠記)하여 표시하거나, 해제의 내용에 저작시대가 나온 경우가 있었다.

天台四教儀 / 高麗沙門諦觀所錄  
心要 / 高麗康宗聞 釋惠謙在修禪寺 遣使求法要 師撰心要以進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석가목에 수록된 서적의 경우 승려를 뜻하는 ‘석(釋)’이란 글자를 관기한 후에 저자명을 기술하였다. 저자명표시 기술 형식은 주로 ‘석(釋) + 법명’, ‘석(釋) + 호 또는 시호’ 등의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다.

예) ‘釋 + 법명’인 경우:  
法界圖書 / 釋義湘所著

60) 위의 책, 諸家詩文集. 釋家. 294. 華嚴疏, 三昧經疏.

淸虛堂集 / 釋休靜所著

‘釋 + 호 또는 시호’인 경우:

千峰詩集 / 釋卍雨所著

圓鑑集 / 釋圓鑑所著

牧牛子詩集 / 釋普照所著

그러나 ‘석(釋)’ 대신에 ‘사문(沙門)’이라고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天台四教儀 / 高麗沙門諦觀所錄

동일 저자의 저작에 대해 시호 또는 범명을 써서 저자명기술을 달리한 경우도 있었고, 저자명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 佛日普照 知訥의 저작

牧牛子詩集 / 釋普照所著(필자註: 知訥의 諡號 佛日普照를 축약해서 기술한 것임)

結社文 上堂錄 法語 歌頌 / 釋知訥所著

法集別行錄節要 / [釋知訥所著]

표제표시 안에 저자의 호나 시호 또는 거처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제의 서두에 저자의 이름이 나온 경우, 저자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懶翁三歌(필자註: 懶翁은 惠勤의 號)

先覺國師撰書(필자註: 先覺國師는 道詵의 諡號)

溪月軒印空吟(필자註: 溪月軒은 自超의 居處)

法集別行錄節要(필자註: 해제부에 牧牛子曰 荷澤神會是知解宗師)

저자를 모르는 경우 저자미상(不知名氏)이라고 표시하였다.

息影庵集 / 僧人所著 不知名氏

저작역할어는 ‘소저(所著)’, ‘소찬(所撰)’, ‘소록(所錄)’, ‘소집(所輯)’ 등으로 표

시하였다.

桂庭集 / 釋省敏所著  
三大部節要 / 釋了世所撰  
天台四教儀 / 高麗沙門諦觀所錄  
釋苑詞林 / 釋義天所輯

이상에서 살펴본 것 외에 목록기술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 분류항목 내에서 저자의 선후학 순의 배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동일 저자의 저작이 분산 된 점, 저자명표시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 등은 다소 아쉽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직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 3.3 조선시대 해제목록과의 비교

현전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대표적인 해제목록은 김휴(金休)의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1638)을 시작으로 서호수(徐浩修)의 「규장총목(奎章總目)」(1781), 서유구(徐有渠)의 「누판고(鑊板考)」(1796), 규장각신들이 편찬한 「군서표기(群書標記)」(1799), 홍석주(洪奭周)의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1810) 등이다. 이 중 「규장총목」, 「누판고」, 「군서표기」 등은 왕명으로 편찬된 목록이고, 「해동문헌총록」, 「홍씨독서록」 등은 개인이 편찬한 목록이다. 해제의 비교를 위해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가서적 54종을 대상으로 이들 해제목록에 수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 중복 수록된 서적은 「규장총목」의 한국본목록인 「서서서목초본(西序書目草本)」<sup>61)</sup> 별집류에 「사명집(四溟集)」<sup>62)</sup>이 수록되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역대 해제목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해제를 통해서 불교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61) 「西序書目」은 해제목록은 아니지만, 「奎章總目」의 한국본목록이라서 본 논문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62) 西序書目草本. 丁 別集類 四溟集一本 釋惟政著.

먼저 왕명으로 편찬된 목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장총목』에는 석가류에 『제경품절(諸經品節)』, 『능엄몽초(楞嚴蒙鈔)』, 『능엄정해(楞嚴正解)』 등 3종의 불서가 수록되었다. 이 중 『능엄정해(楞嚴正解)』의 해제를 살펴보면 “천태의 전창법사 영요(全彰法師靈耀)가 불조(佛祖)의 진인(眞印)을 얻어 판석(判釋)의 권형(權衡)을 손에 쥐고 총별을 간략하게 하여 마음을 보는 법을 논했다. 10권의 신령한 글이 환하게 드러나자 경관(境觀)이 정해졌다. 천추에 해결하지 못한 안건이 이에 크게 정해졌고, 교광(交光)의 편벽되고 잘못된 설 또한 쉽게 해결되었다.”<sup>63)</sup>고 기술하여 불가에 대해 비하하는 내용이 아닌 불서 자체를 대상으로 해제를 기술하였다. 또한 그 외의 해제에서도 불교에 대해 비하하지 않고 서적 그 자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제를 하였다.

『누판고』의 석가류에는 『대장경(大藏經)』,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화엄경(華嚴經)』,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등 12종의 불서가 수록되었다. 이 중 『선문염송설화』의 해제를 보면 “그 책은 선경(禪經)의 자구(字句)를 표거(標舉)하고, 여러 대가들이 주소(註疏)에서 밝힌 뜻을 널리 인용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불전 가운데 가장 풍부하고 박식한 것.”<sup>64)</sup>이라고 기술하여 그 서적이 지닌 내용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군서표기』에 수록된 유일한 불서인 『범우고(梵宇攷)』의 해제에서도 “깊은 숲 속에 있는 절을 승려들이 지켜준 덕에 그곳이 짐승이나 악한 무리들의 거처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등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이 책을 지은 것”<sup>65)</sup>이라고 정조의 친찬제(親撰題)를 인용하여

63) 『奎章總目』卷三, 皆有窩 丙庫 釋家類 楞嚴正解十一本.

“清天台比丘靈耀述 總十二卷 杜臻序曰 天台全彰法師得佛祖眞印 秉判釋權衡 約總別以論觀心 而十卷之靈文顯揭 境觀以定 不惟千秋不決之案於茲大定 交光僻謬之說 亦迎刃而解云.”

64) 서유구, 『누판고』 (보림각, 1968). 자부 석가류 154.

“其書 標舉禪經字句 而廣引諸家疏釋旨義 東國佛典中最爲富博.”

65) 『群書標記』 (서울: 학문각, 1970), 御定4.

“親撰題曰 … 佛教自中國至海東 于今千七百餘年 … 惟緇髡之徒 徒守舊刹而已矣 然而

그 해제를 기술하였다. 당시의 지배이념은 성리학이지만, 통치력이 닿지 않는 산간벽지를 다스리는 데는 불교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 역시 승려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미 종교로 자리 잡은 불교에 대해 포용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것이다.<sup>6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명에 의해 편찬된 해제목록의 경우, 「해동문헌총록」의 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록 이단에 속하는 불가서적이라도 단순히 불교라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멸시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그 자체를 인정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가서적의 해제를 기술하였다. 아마도 당시에 이미 종교로 백성들에게 깊이 자리 잡은 불교에 대해 명찬서에서 표면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기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왕명으로 편찬된 목록과 개인이 편찬한 목록에 나타난 불교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목록의 해제에 나타난 불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왕명으로 편찬된 목록과 일개 학자가 개인적으로 편찬한 것을 서로 대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없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김휴의 불교에 대한 관점을 조사하는 데는 개인이 편찬한 해제목록과 비교해 보는 것이 더 온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이 편찬한 목록인 「홍씨독서록」에 수록된 불교서적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씨독서록」은 연천 홍석주가 편찬한 해제목록이다. 「홍씨독서록」의 석가문(釋家門)<sup>67)</sup>에는 유서(類序)와 더불어 중국인이 번역 또는 저술한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능가경(楞伽經)」, 「원각경(圓覺經)」, 「능엄경(楞嚴經)」, 「법화경(法華經)」, 「화엄경(華嚴經)」, 「금강경(金剛經)」, 「유마힐경(維摩詰經)」, 「유교경(遺教經)」, 「불조통재(佛祖通載)」 등 10종의 불서를 수록하고 거기에 해제를 붙였

---

蓬山深谷 穹林鉅藪之中 虎豹之所窟宅 姦宄之所巢穴 而簿書之不及也 訟獄之不有也 兵食之不資也 鎮之以比丘大衆 保之以永世浩劫者 蓋緇髡與有力焉 此梵宇攷之所以作。”  
66) 리상용, “「군서표기」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권 1호 (2006. 3), 392.

67) 「홍씨독서록」에서는 유목명에 ‘類’ 대신 ‘門’이란 접미어를 사용하였다.

다. 먼저 석가문의 유서(類序)에 나타난 연천 홍석주의 불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가(老家)와 석가(釋家)는 도에 있어서 모두 이단적 존재이다. … 불가(佛家)의 무리는 대륜(大倫)을 버리고 사람의 도리를 끊어서 하루도 백성과 모여 살지 못한다. 그러나 동한(東漢) 이후로부터 공자(孔子)의 도(道)를 함께 셋이 대등하게 병립하여 삼교(三教)를 이루었다. 천하의 사람 중에 어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함께 이를 받아들인 지가 천여 년이 되었다. 지금 군자가 이에 대항해서 물리치고자 한다면 말할 나위 없이 그 책을 구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老釋之於道 俱異端也 … 釋氏之徒 棄大倫 絕人道 不可以一日群於生民 然自東漢以後 與孔氏之道 鼎立而爲三教 天下之人 無賢愚 翕然嚮之 千有餘年矣 今之君子 欲辭而闕之 固亦不能不求觀其書也).<sup>68)</sup>

위의 글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연천은 불교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 그는 군자가 불교서적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불교에 대항해서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고 논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극히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불가에 대해 철저히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천이 부처의 교리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을 가한 것은 아니다. 그는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의 해제에서 “석가(釋家)의 책이 중국에 들어온 것은 이 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말이 간략하고 질박하여 오히려 고인이 남기신 뜻이 있으며 그 뜻 또한 평이하야 깨우치지 못할 것이 없으니, 대개 부처의 설교의 주요한 교의가 원래 이 같은 것인데, 후대에 들어서 말에 능한 선비들이 미세한 기교를 부려서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서 백성을 현혹시키게 되었으니 어찌 이것이 부처의 뜻이겠는가?”<sup>69)</sup>라고 기술하여, 석가모니의 근원적인 교리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교리가 황당무계 하게 변질된 점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능가경(楞伽經)』,

68) 홍석주 저, 리상용 역주, 『역주홍씨독서록』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288-289.

69) 위의 책, 289.

“四十二章經一卷 後漢所譯也 釋氏之書入中國 自此始 其言簡質 猶有古人遺意 其旨亦淺近 無不可曉者 蓋釋氏設教之宗旨 固如是而已 及其後世能言之士 厭其卑近 而文之以微巧 於是乎 荒唐幽幻 放誕惑衆之辭 始紛然而不可禁矣 是亦豈釋氏之意哉.”

「원각경(圓覺經)」, 「능엄경(楞嚴經)」, 「법화경(法華經)」, 「화엄경(華嚴經)」, 「금강경(金剛經)」, 「유마힐경(維摩詰經)」, 「유교경(遺教經)」 등의 서적에 대해서도 “이 책들 가운데 한권만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으므로 굳이 다 볼 필요가 없다.”<sup>70)</sup>고 해제를 기술하였다.

김휴, 홍석주 이 두 인물은 비록 학과, 가문, 관직 등은 다르지만, 모두 조선시대에 성리학적인 질서 속에서 교육을 받고 해제목록을 편찬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불가서적에 대한 두 학자의 관점은 완연하게 차이가 났다. 해제의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김휴는 불교에 대해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술한 반면, 홍석주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수록서적 측면에서 볼 때, 「해동문헌총록」에서는 한국인 저작만을 수록한 반면, 「홍씨독서록」에서는 중국인 저작만을 수록하였다. 유목체계 측면에서 보면, 「해동문헌총록」에서는 석가(釋家)에 대한 유목을 유(類)의 단계에서 설정하지 못하고, 제가시문집류(諸家詩文集類)의 하위단위인 목(目)의 단위에서 그에 대한 유목을 설정하였으나, 「홍씨독서록」에서는 석가류(釋家類)를 자부(子部)의 바로 아래 단계의 유(類)의 단위에서, 그 순차가 비록 맨 마지막의 것이긴 하지만, 이를 포함시켜 배열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김휴는 「해동문헌총록」에서 한국인 승려의 저작을 수록하고 불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우호적인 측면에서 해제를 한 반면, 홍석주는 「홍씨독서록」에서 중국인 승려의 저작만을 수록하고 불교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휴가 당시 이단적인 불가의 서적에 대해 객관적으로 해제하고, 중국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나라 승려의 저작을 목록에 수록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70) 위의 책, 289.

“楞伽經四卷 圓覺經十卷 楞嚴經十卷 法華經七卷 華嚴經八十一卷 金剛經二卷 維摩詰經十卷 遺教經一卷 皆中國人所譯也 惟金剛楞伽 最古 釋氏之書 著於世者 大略如此 得其一而觀之 亦足以識其旨歸 固不必盡觀也.”

### 3.4 불가서적에 대한 평가

현전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해제목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수를 보면, 『해동문헌총록』의 제가시문집류 석가목에 54종, 『규장총목』의 『개유와서목』 석가류에 3종, 『서서서목』 별집류에 1종, 『누판고』 석가류에 12종, 『군서표기』 어정에 1종, 『홍씨독서록』 석가문에 10종 등 총 81종이 수록되어 있다.

『해동문헌총록』에서는 불가서적과 그의 저자인 승려에 대해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제를 기술하였다. 또한 왕명으로 편찬된 『규장총목』, 『누판고』, 『군서표기』 등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해제 역시 불교 자체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유독 연천 홍석주가 편찬한 『홍씨독서록』에서만 불교에 대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해제를 기술하였다.

해제목록을 편찬하려는 사람이 목록을 편찬하기에 앞서 기존에 간사된 해제목록을 참조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해동문헌총록』 이후에 편찬된 『규장총목』, 『누판고』, 『군서표기』, 『홍씨독서록』의 편찬자들이 목록 편찬에 앞서 이 『해동문헌총록』을 읽고 참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 놓을 수 있다.

정조 때의 대학자이자 호서가(好書家)인 청장관 이덕무가 『양엽기(養葉記)』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서’란 제목으로 우리 역사서적 65종에 대한 목록과 그의 해제를 수록하였는데, 이덕무가 그 목록을 작성하면서 『해동문헌총록』을 참조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이다.<sup>71)</sup> 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해동문헌총록』은 이미 정조 때의 호서가들 사이에서 널리 통독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역대해제목록 가운데 왕명으로 편찬된 『규장총목』, 『누판고』, 『군서표기』 등은 모두 정조 때 편찬된 해제목록이다. 이들 목록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이 『해동문헌총록』의 해제를 탐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들이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서의 해제를 읽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해제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해동문헌총록』은 어떤 식으로든 후대 목록의 편찬에

71) 리상용, “청장관 이덕무의 목록론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46집(2010. 9), 249-250.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연천 홍석주 역시 이 「해동문헌총록」을 읽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연천이 설사 이 목록을 미리 보았다하더라도 일부 참조는 했겠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휴와 홍석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났다. 학과 면에서 볼 때 김휴는 영남학파에 속했고, 홍석주는 기호학파에 속했다. 또한 김휴가 「해동문헌총록」의 해제를 작성하면서 영남학파에 편중했으므로 기호학파의 학자들이 보기에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가문 면에서 볼 때, 김휴는 영남의 명문가인 의성 김씨의 자손이지만, 정작 그의 성장 시 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반면, 홍석주는 풍산 홍씨의 자손으로 그의 본생조(本生祖) 홍낙성(洪樂性)이 영의정을 지낸 소위 재상의 손자로 성장했던 것이다. 관직 면에서 볼 때, 김휴는 강릉참봉에 제수된 것 외에 이렇다 할 벼슬이 없었던 반면, 홍석주의 경우 「홍씨독서록」을 편찬할 당시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으며, 후에 홍문관·예문관 대제학, 좌의정까지 지냈던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문신이였다. 해제 기술면에서 보아도, 김휴는 책의 서발문이나 기존에 나온 다른 서적 또는 다른 학자들의 글을 인용 또는 축약하여 해제를 기술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홍석주는 책을 읽은 소감을 주로 자신의 표현으로 기술하였으며, 그 해제에 주관적인 논지를 뚜렷하게 드러냈던 것이다. 이처럼 두 인물의 학과, 가문, 성장배경, 관직 등이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나듯, 불서(佛書)에 대한 해제의 관점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해제에서 책의 내용이나 판본 등은 별로 다루지 않고 저자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제를 기술한 점, 동일 분류항목내에서 저록의 배열이나 목록기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김휴가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가 만연했던 조선 후기에 유독 우리나라 승려가 편찬한 서적만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해제를 작성하고, 당시 성리학적인 질서 속에서, 이단에 해당하는 불가서적의 해제를 객관적으로 기술한 점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 4. 결 론

본 논문은 조선 후기의 학자인 경와 김휴(敬窩金休)가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인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해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성리학자였던 그가 당시 이단에 속하는 불가서적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해제를 기술했는가에 대해 고구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고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불가서적은 『해동문헌총록』의 ‘제가시문집류(諸家詩文集類)’ 석가목(釋家目)에 수록된 54종의 서적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 54종의 서적은 29인의 승려가 저술 또는 편찬한 것이다. 이들 서적을 저자의 생존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삼국시대의 저작으로는 『화엄소(華嚴疏)』, 『법계도서(法界圖書)』, 『옥룡집(玉龍集)』 등 7종, 고려시대 및 조선초기의 저작으로는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 『삼대부절요(三大部節要)』, 『고승전(高僧傳)』 등 40종, 조선시대의 저작으로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자기산보문(仔夔刪補文)』, 『사명당집(四溟堂集)』 등 6종, 저자미상 저작으로 『식영암집(息影庵集)』 1종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의 저작이 40종(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 불가서적의 해제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았다. 먼저 해제의 내용을 소개한 후 이를 토대로 불가서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제한 경우와 승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제한 경우로 구분해서 김휴가 어떤 관점에서 해제를 기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교서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제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그는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불서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해제를 기술하고, 그 내용이 훌륭하다고 판단될 경우 높은 찬사를 보냈다. 승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제한 경우를 분석해본 결과, 조선시대의 승려 보우에 대해서만 혹평하고, 나머지 모든 승려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억불정책을 썼던 조선시대의 승려 유정에 대해 그가 임진왜란 때 행한 활약과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등 일부 승려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공적을 밝히고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단인 불가의 서적이라도 책의 내용적 가치가 훌륭하거나 저자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해제를 기술했다.

그 다음으로 불가서적을 분류법적인 관점과 목록기술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류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해동문헌총록」에서는 제1분지(第1分枝)의 20개 유목(類目)중의 하나인 ‘제가시문집류(諸家詩文集類)’의 하위 단계 즉 제2분지(第2分枝)에 ‘석가목(釋家目)’이란 유목을 설정하고 거기에 승려들의 시문집과 더불어 불교관련서 모두를 함께 수록하였다. 석가 내에서 저록의 배열방식은 저자의 선후학순(先後學順)의 배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동일저자의 저작이 분산 배열된 경우도 간혹 있었다.

다음으로 목록기술방식을 살펴보면, 표제표시, 권수표시, 저작시대표시, 저자명표시, 저작역할어표시, 해제 등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권수표시를 한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대부분의 저록에서 그 표시를 생략했다. 저작시대표시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석(釋)’이란 명칭을 관제한 후에 저자명을 기술하였다. 저자명표시의 기술 형식은 주로 ‘석(釋) + 범명’, ‘석(釋) + 호 또는 시호’ 등의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동일 저자의 저작에 대해 시호 또는 범명을 써서 저자기술을 달리한 경우도 있었고, 저자의 호나 시호 또는 거처 등이 서명에 포함된 경우 저자명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저작역할어는 ‘소찬(所撰)’, ‘소저(所著)’, ‘소록(所錄)’, ‘소집(所輯)’ 등으로 표시하였다.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해제기술 관점을 「규장총목」(1781), 「누판고」(1796), 「군서표기」(1799), 「홍씨독서록」(1810) 등 역대 해제목록에 수록된 불가서적의 해제와 비교해 보았다. 왕명으로 편찬된 「규장총목」, 「누판고」, 「군서표기」의 경우, 불가서적에 대해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해제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연천 홍석주가 편찬한 「홍씨독서록」에서는 불가서적에 대해 아주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해제를 기술하였다.

이상에서의 고구(考究)를 토대로 「해동문헌총록」의 불교서적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동문헌총록』에서 불가서적의 내용이나 판본 등은 별로 다루지 않고 저자인 승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제를 기술한 점, 동일 분류항목내에서 저록의 배열이나 목록기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당시 많은 선비들이 사대주의를 표방하며 중국 중심의 사고관이 만연했던 조선 중기에 김휴가 우리나라 서적을 위한 해제목록을 편찬하고, 우리나라 승려의 저작을 선정하여 수록한 것은 그의 큰 성과이다. 그에 더하여 당시 성리학적인 질서 속에서, 성리학적인 입장을 초월하여, 이단인 불가서적에 대해 해제의 객관성을 유지한 점은 더욱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군서표기』. 서울: 학문각, 1970.

강주진. “해동문헌총록해제와 간행서.” 『해동문헌총록』. 서울: 학문각, 1969. 1-7.

김건곤. “『해동문헌총록』 소재 고려문집 연구: 부전문집을 중심으로.” 『藏書閣』 18(2007. 12). 57-88.

김성일. 『鶴峯全集』. 영인본.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2.

김약슬. “경와집에 대하여.” 한국서지학회. 『서지학』 7(1982). 121-125.

김 휴. 『해동문헌총록』. 영인본. 서울: 학문각, 1969.

동국대학교.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http://buddha.dongguk.edu/>). 서울: 동국대학교.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리상용. “『군서표기』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6. 3). 373-395.

리상용. “『누관고』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1집(2005. 9). 231-262.

- 리상용.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0집 (2005. 6). 247-281.
- 리상용. “청장관 이덕무의 목록론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46집(2010. 9). 237-266.
- 리상용. “「海東文獻總錄」 수록 도서의 질적 평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9집(2011. 9). 169-202.
-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선주논총』 9(2006). 65-98.
- 리재철.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성곡논총』 7(1976). 580-598.
- 배현숙. “해동문헌총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75.
- 서유구. 『누판고』. 홍명희교정본. 영인본. 서울: 보림각, 1968.
- 서호수. 『규장총목』. 내각, [1781].
- 신승운 역. 『군서표기』(홍재전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 윤남한 해제. “金然 著 海東文獻總錄.” 영신 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한국학』 2(1974. 3) 5-6.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1.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 홍석주 저. 리상용 역주. 『역주홍씨독서록』.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